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의
교육철학을 적용한
중학교 음악교과 지도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 로 사

2017년 8월



석사학위논문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의
교육철학을 적용한
중학교 음악교과 지도방안 연구

지도교수 박 순 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 로 사

2017년 8월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의
교육철학을 적용한
중학교 음악교과 지도방안 연구

지도교수 박 순 방

이 로 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이로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6월

A Study on Teaching Plan of Music Class at Middle School Adopting Rudolf Steiner's Philosophy of Education.

Lee, Ro-S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Soon-B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7.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oon Bang Park, Prof. of Music Education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적용한 중학교 음악교과 지도방안 연구

이 로 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박 순 방

본 논문은 현대 물질문명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인적 능력을 길러, 스스로 사고하고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인간으로 성장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인지학적 교육철학을 적용한 중학교 음악교과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슈타이너의 생애 및 인지학적 교육이론을 조사하여, 그의 교육철학을 토대로 행해지는 ‘자유 발도르프 학교(Free Waldorf School)’의 교육 방법 및 특징을 고찰하였다. 또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표현’영역의 지도방안에서는 그에 따른 성취기준에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적용하여, 중학교 1학년(7학년)을 대상으로 2차시에 걸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의 예술가곡 ‘보리수(Die Lindenbaum)’를 제재 곡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감상’영역에 따른 성취기준에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적용하여 중학교 2학년(8학년)을 대상으로 2차시에 걸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제재 곡은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교향곡 3번 ‘영웅(Symphony No. 3 in E-flat Major, Op. 55 ‘Eroica’)'의 1, 2악장을 선정하였다.

마지막 영역인 ‘생활화’ 역시 성취기준에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적용하였다. 중학교 3학년(9학년) 학생들이 교내 합창제에 참여하여 공연 내용 및 기획에 대하여 비평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여기서는 1차시에 한 하여 교과 지도방안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음악 교과 지도방안을 뒷받침 하는 슈타이너의 교육 핵심은, 학생들의 사고와 감정이 적절한 때에 발달하도록 하여 그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슈타이너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현 시대를 비판하여 ‘정신성’의 회복을 강조함으로써,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흥미와 자질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한다. 또한 음악교과와 타 교과와의 통합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적 발달과 예술적 감각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슈타이너가 주장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본래 ‘자유 발도르프 학교’는 대안학교로서의 취지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교육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적절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교사 양성 교육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3. 선행 연구	3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슈타이너의 교육이론	5
1) 슈타이너의 생애	5
2) 인지학 및 인지학적 인간관	7
3) 교육예술론	10
2.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	14
1) 자유 발도르프 학교	14
2)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	16
3.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26
1) 내용체계	26
2) 성취기준	28
III. 음악교과 지도방안의 모색	31
1. ‘표현’영역 지도방안 모색	31
1) ‘표현’영역 단위 계획	31
2) ‘표현’영역 교수·학습 지도안 1차시	35
3) ‘표현’영역 교수·학습 지도안 2차시	40
2. ‘감상’영역 지도방안 모색	43
1) ‘감상’영역 단위 계획	43
2) ‘감상’영역 교수·학습 지도안 1차시	47
3) ‘감상’영역 교수·학습 지도안 2차시	51

3. ‘생활화’영역 지도방안 모색	55
1) ‘생활화’영역 단위 계획	55
2) ‘생활화’영역 교수·학습 지도안	57
IV. 결론 및 제언	60
<참고문헌>	62
<Abstract>	65

표 목차

<표Ⅱ-1>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 ‘내용 체계’……………	27
<표Ⅱ-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 ‘내용 체계’……………	27
<표Ⅱ-3>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 ‘성취기준’……………	28
<표Ⅱ-4> 중학교 음악교과 ‘표현’영역 성취기준 ……………	29
<표Ⅱ-5> ‘중학교 음악교과 ‘감상’영역 성취기준 ……………	30
<표Ⅱ-6> ‘중학교 음악교과 ‘생활화’영역 성취기준 ……………	30
<표Ⅲ-1> ‘표현’ 영역 교수·학습 단위 계획 ……………	31
<표Ⅲ-2> ‘표현’영역 교수·학습 지도안에 적용한 ‘성취기준’ ……………	34
<표Ⅲ-3> 슈타이너의 음악교육 철학을 ‘표현’영역에 적용한 교수법 ……………	34
<표Ⅲ-4> ‘감상’ 영역 교수·학습 단위 계획’ ……………	43
<표Ⅲ-5>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구성 ……………	44
<표Ⅲ-6> ‘감상’영역 교수·학습 지도안에 적용한 ‘성취기준’ ……………	46
<표Ⅲ-7> 슈타이너의 음악교육 철학을 ‘감상’영역에 적용한 교수법 ……………	46
<표Ⅲ-8> ‘생활화’ 영역 교수·학습 단위 계획 ……………	55
<표Ⅲ-9> ‘생활화’영역 교수·학습 지도안에 적용한 ‘성취기준’ ……………	56
<표Ⅲ-10> 슈타이너의 음악교육 철학을 ‘생활화’영역에 적용한 교수법 ……………	56

그림 목차

<그림 II-1> 모음 오이리트미	20
<그림 II-2> 음계 오이리트미	20
<그림 II-3> 악기 ‘라이어’	22

악보 목차

<악보Ⅱ-1> 5음 음계	21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학교는 주요과목 교육에 치중하여 입시위주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학교라는 장소가 선발장치로서의 기능을 행하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음악과목은 입시와 관련이 적은 과목이기에 학교 교육 안에서 시수가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의 감정과 사고를 발달시킬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판하며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가르침으로써 행해지는 ‘전인적 인간’으로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즉, 인간의 발달단계에 맞춰 의지, 감정, 사고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음악·미술과 같은 예술교과를 중시한 교육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 내면에 존재하는 의지와 감정의 힘을 밖으로 끌어내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슈타이너 교육철학의 핵심이다.

슈타이너가 자신의 교육철학을 하나의 이념으로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자유발도르프 학교(Free Waldorf school)’라는 교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여전히 전 세계에서 그의 뜻을 이어가는 교육이 실천되고 있다.

학생들이 전인적 능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사고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이러한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은 더욱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2015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을 탐구하고, 중학교 음악 수업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근거로 한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 방법을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중학교 음악교과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루돌프 슈타이너의 생애와 그의 ‘인지학적 교육관’에 관하여 여러 단행본과 학술지 그리고 학위논문을 통하여 고찰한다.

둘째,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일반적 특징 및 음악교육의 구성을 단행본과 논문을 통해 연구한다.

셋째, 본 연구 교과지도방안 구성의 기준이 되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을 발췌하여 보여준다.

넷째,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슈타이너의 음악교육 철학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적용한 학습활동을 연구하여 중학교 음악 수업을 위한 지도방안을 제시한다.

3. 선행연구의 고찰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의 실천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후반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되어 대안교육에 수용되고 있다. 그 중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성화¹⁾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음악교육을 우리나라에 교육에 적용한 연구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음악교육관 및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 특징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정리하였다.

김지예²⁾는 7차 음악과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슈타이너의 교육이념을 적용하여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창영역과 감상영역에 한하여 각각 1차시에 걸친 수업을 구성하였다.

김현경³⁾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9학년 수업의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방법 4가지에 대한 우리나라 공교육에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 후, 그에 대한 한계점을 밝힘으로써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혜숙⁴⁾은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중학교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특히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측면에서 목적, 특징, 중등음악교육으로 나누어 상세히 다루었다.

1) 임성화(2000), 『독일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 김지예(2009), 『슈타이너의 교육이념을 적용한 중학교 음악수업의 연구 - 7차 음악과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3) 김현경(2013), 『독일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방법을 적용한 음악수업 지도방안 연구 : 9학년 수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4) 이혜숙(2016), 『슈타이너 교육사상을 통한 발도르프학교의 음악교육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4. 연구의 제한점

루돌프 슈타이너의 음악교육 철학을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중학교 음악교과 지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대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의 본래 취지가 슈타이너 교육철학에 중점을 둔 교과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둘째, 「2015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아직 교과서가 편찬되지 않았으므로, 교수·학습 지도안의 제재 곡 및 학습 내용은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중학교 교육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셋째, 입시를 위한 주요과목 위주의 교육이 팽배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토대로 설계된 음악교과 지도방안을 적용하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어려움과 부담감이 수반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슈타이너의 교육사상과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접목시켜 설계한 음악교과 지도방안에 한하였다. 따라서 이를 실제 수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적 효과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슈타이너의 교육이론

1) 슈타이너의 생애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는 현재 크로아티아(Croatia)에 해당하는 크랄예벡(Kraljevec)에서 태어났다. 그는 철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잦은 전근으로 인해 여러 지역으로 이사를 다니며 숲으로 뒤덮은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더불어 기차역에서 새로운 현대 문명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슈타이너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철도회사의 기술자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슈타이너는 초등학교 졸업 후 노이슈타트(Neustadt)에 있는 실과학교(Realschule)로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하기 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감각을 통해 볼 수 있는 사건과 세계는 공간 안에 존재한다.

공간은 인간 바깥에 있다.

그런데 인간 안에도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정신적인 사건을 위한 공간으로 영혼적인 것일 것이다.

사고를 단지 사물의 형태에 대한 그림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고는 정신세계가 영혼적인 무대 위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⁵⁾

이와 같이 정신세계에 대한 갈망을 가진 그는 수학, 물리, 화학 등의 책을 읽으며 독학 하였으나 대학 입학 즈음에 아버지가 비엔나(Vienna) 근처로 전근을 가게 되면서 비엔나 공과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대학에서 문학 교사인 솔레어(Karl Julius Schoroer)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의 교육을 통해 슈타이너는

5) 정윤경,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발도르프학교(2000)」,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p. 25.

물질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어 슈타이너는 전공 공부를 끝마치지 못한 채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가정교사로서 한 가정의 네 형제를 가르쳤다. 그 중 막내가 뇌수종을 앓았는데, 그는 슈타이너의 교육에 큰 영향을 받아 건강이 점차 호전되었고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의사가 되었다. 슈타이너는 그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인간교육에 관하여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아동과의 친밀감과 애정을 나누는 관계를 통하여,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아동 안의 정신적 힘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 때를 상기하며 슈타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당시의 교육실천을 통해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신체적인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실천을 통해 나는 생리학과 심리학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고, 교육과 수업이 진정한 인간 본성에 기초한 예술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⁶⁾

슈타이너가 이 때부터 ‘인간의 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교육’과 ‘예술로 행해지는 교육’에 관한 교육관을 세우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점차 정신세계의 존재에 대한 사상이 확고해진 슈타이너는 1902년 신지학회⁷⁾라는 종교조직에 가입하였으나 자신이 주장한 ‘인지학’은 ‘신지학’과 차이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1913년 신지학회에서 탈퇴하여 자신의 사상 전파를 위해 ‘인지학회’를 설립하였다.

1919년에 슈타이너는 에밀 몰트(Emil Molt)의 제안으로 ‘자유 발도르프 학교(Free Waldorf School)’를 설립하였고, 자신의 인지학적 교육철학을 토대로 교육을 실천하였다.

6) 정윤경(2000), 상계서, p. 27.

7) ‘신지학회’ : 19세기 말 블라바츠키(Blavatsky, Helena Petrovna : 1831~1891)등에 의해 성립된 학문으로, 신비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인간의 영혼(혹은 자아)는 불멸하여 일련의 재생과정을 거쳐 신적 존재로 진화해 간다고 주장함.

2) 인지학 및 인지학적 인간관

(1) 인지학(Anthroposophy)

‘인지학’은 가볍게 접근하여 정의할 수 있는 체제나 사상이 아니다. 먼저 용어를 살펴보면 ‘Anthroposophy’는 라틴어로 ‘사람’이라는 뜻인 ‘Anthropos’와 ‘지혜·지식’을 뜻하는 ‘Sophia’로 이루어져 ‘인간의 지혜’를 말한다. 슈타이너에게 ‘인지학’은 인간이 자신의 인간성을 의식하도록 ‘인간 영혼에게 지혜를 부여하는 것’⁸⁾으로 역동성을 띤 개념이다. 즉, ‘인지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이며, 인간과 그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인지학적 교육’은 정치, 경제의 발전을 위한 요구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인간 고유의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인지학’의 발달사를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제 1기는 1902년에서 1909년으로, 처음 ‘인지학’이 성립되고 슈타이너의 사상이 개념으로 갖춘 형태의 책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대표적인 예로 『Theosophy』(신지학, 1904)가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인지학’이 추상적인 어떠한 종교나 세계관이 아닌 개념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간의 본성을 기술할 때에도 자연과학의 사실들에서 출발하였다. 나는 인간학을 심화시켜서 인간 유기체가 체계마다 분화되는 것을 보이고 싶었다. 그래야 유기체의 각 부분이 영혼과 정신의 어느 영역과 관련되는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⁹⁾

슈타이너의 인지학 제 2기는 1910년에서 1916년까지이며 이 때는 그의 내적 경험이 예술적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 오이리트미(Eurythmy)¹⁰⁾가 생겨난다. 또한 이 시기에 스위스의 도시 도르나하(Dornach)에 인지학적 활동과 드라마 공연을 위한 건축물 ‘괴테아눔(Goetheanum)’을 지었다.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922년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제2의 괴테아눔이 세워져 오늘날까

8) 임성화(2000). 「독일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 9.

9) 정윤경(2000), 전제서, p. 28.

10) 오이리트미(Eurythmy) : 눈으로 볼 수 없는 음악을 몸의 움직임을 통해 나타내는 슈타이너의 음악 교육 요소.

지도 인지학의 활동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3기(1917년~1923년)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된 그의 내적 경험이 구체적 실천으로 사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강조되는 시기이다. 이 때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의학, 농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국가의 혼란이 극에 달해있던 독일에서 슈타이너는 자신이 직접 ‘삼중적 사회질서 운동’(Threefold Social Order Movement)¹¹⁾을 주도하며, 당시 국가의 실천적인 문제와 관련된 글을 국민들에게 직접 발표하였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은 에밀 몰트는 슈타이너에게 학교 교육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고, 슈타이너는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인지학을 바탕으로 ‘자유 발도르프 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자유 발도르프 학교’에서 슈타이너는 성장하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예술적 구성의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 각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천한다.

(2) 인지학적 인간관

슈타이너는 ‘인지학적 교육’이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여기에서 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영혼과 정신영역)까지 신체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은 이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인지학에 기초한 인간관을 살펴보겠다.

① 신체·영혼·정신의 구조

슈타이너는 인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체 뿐 아니라 영혼과 정신이 더해진 삼중적 구조로 이루어진 구성체라고 하였다.

‘신체’를 통하여 인간은 많은 것을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으며,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의지·감정·사고의 활동으로 그것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또 슈타이너는 ‘정신’을 통하여 인간 바깥의 세계가 더욱 고차원적으로 각자의 안에 드러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11) 삼중적 사회질서 운동(Threefold Social Order Movement): 신체, 영혼, 정신의 삼중적 구성체로 이루어진 인간과 같이 사회 역시 경제, 정치, 문화 세 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인간의 각 구성체가 관리되고 발달되는 방법이 다르듯이 사회의 세 구조 역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동시에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운동을 뜻한다.

앞서 슈타이너가 뇌수종을 앓았던 학생을 교육할 때에 깨달은 것과 같은 이치로, 우리의 신체는 영혼적·정신적인 부분들이 작용하여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들은 아동의 신체적 특성을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외모, 움직이는 자세나 습관 등이 그들의 정신적인 면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② 네 가지 본질의 구성체

슈타이너는 인간을 ‘네 가지 본질’을 지닌 구성체로서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탄생을 비롯하여 7세, 14세, 21세의 각각 시기에 맞추어 물질체(The Material Body), 에테르체(The Etheric Body), 아스트랄체(The Astral Body), 자아체(I-Being Body)를 갖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0~7세경에 발달하는 ‘물질체’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신체를 말한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신체가 광물계의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신체에 생명이 없다면 존재의 가치가 광물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7~14세경에 발달하는 ‘에테르체’는 ‘생명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슈타이너가 사용하는 에테르체의 의미는 ‘고차원적 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것’, ‘물질체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적 내용물에 분명한 형태와 모습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것’¹²⁾을 뜻한다. 물질체의 모든 형태 구성은 에테르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물질체에 에테르의 힘이 없다면 신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이러한 에테르체를, 물질체를 감싸고 있으며 인간의 상태에 따라 특정 색을 띠는 ‘아우라(Aura)’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14~21세경 발달하는 ‘아스트랄체’는 식물에게는 없고 동물과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감정체(Sentient Body)’라고도 한다. 인간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자신만의 세계로 받아들이면서 내적 경험을 체험하게 된다. 이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식을 ‘아스트랄체’라고 한다. 또한 슈타이너는 인간이 잠을 잔 후 깨어나게 하는 힘을 아스트랄체 라고 보았는데,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깨어나지 못하는 식물인간의 상태가

12) 요하네스 키르쉬(Johannes Kiersch) (2004), 김정임·이정희 역, 「발도르프 교육학」, 서울 : 학지사. p. 87.

된다고 하였다.

‘자아체’는 21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달하며 오로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고유의 것이다.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상태인 ‘나’로 남과 구분시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이처럼 인간이 눈에 보이는 물질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는 이러한 인간 구성요소의 발달을 고려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3) 교육예술론

슈타이너는 교육을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강조한 ‘교육예술(Erziehungskuns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삼단계 교육론’과 ‘기질론’을 설명하였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교육 예술(Art of Education)은 인류문명의 내적 발달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 만일 눈에 보이는 인간 배후의 신비에 대한 비전이 없이, 외적인 형태에 대한 지식만 알고 인간 본질의 핵심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교육이 예술이 될 수 있겠는가?”¹³⁾

(1) 삼단계 교육론

슈타이너는 인간의 발달을 7년 단위로 구분한 ‘삼단계 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영혼의 기능인 의지·감정·사고가 각 단계별로 발달하는 순서가 정해져있다는 것과, 세 영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젓니에서 영구치로 바뀌는 아동의 이갈이(Bruxism)나 사춘기 청소년의 2차 성징을 발달단계의 대표적 특징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에 몸의 변화일 뿐이지만 그것은 곧 정신과 영혼의 변화와 함께한다고 보았다.

각 시기별 특징과 그에 적합한 교육을 살펴보겠다.

13) 정윤경(2000), 전계서, p. 91.

① 영·유아기(0~7세)

슈타이너는 인간이 태어나서 7세까지는 신체, 영혼, 정신 중 신체가 가장 왕성히 발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시기의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 모델링을 이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교사는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될 만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교사의 속마음이나 태도·분위기도 감각을 통해 인지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인 환경 뿐 아니라 안정된 심리에 기반을 둔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신체와 감각을 통한 교육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의지에 기초를 둬으로써 행해진다. 이것은 앞으로 행해질 발달단계 중 아동기에서의 감정 교육과 청소년기에서의 사고 교육을 수월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② 아동기(~14세)

영·유아기에는 영혼적 특성이 크게 발달하며 그 기능 중 ‘감정’이 발달한다. 슈타이너는 ‘포르멘(Formen)’교육¹⁴⁾을 통하여 아동이 교육내용의 개념을 습득하기 전에 마음껏 그에 대하여 상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림의 형태로 먼저 상상력에 자극을 줌으로써 아이들의 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이 시기에 아동은 아직 추상적인 개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유아기 때에 모방을 통한 교육이 강조되었다면, 이 시기에는 교사의 권위(Authority)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기는 아동의 자세(Discipleship)가 중요하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이 시기 아동은 교사의 강압이나 힘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내적 지각을 통해 느낀 교사의 권위로부터 외부의 것을 관련시킨다. 그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의식이나 성향, 습관 등을 형성해 간다.

③ 청소년기(~21세)

영·유아기에 의지가 발달하고, 아동기에는 감정이 발달하며 청소년기에는 사고가 발달한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학생들은 이 때 지식을 습득하는

14) 포르멘(Formen) 수업 : 슈타이너의 교육법 중 하나로, 형태와 관련된 그리기 활동. 뒤의 ‘자유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구성’에서 다룸.

능력 뿐 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각과 사고력이 동시에 발달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자유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농사일이나 수공예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는 학생들이 손과 발 등 자신의 신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여 사물에 대한 지각과 자유로운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2) 기질론(Temperament)

현대 심리학에서 유전과 환경이라는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간을 바라보는 것과 달리 슈타이너는 정신세계에서의 경험과 유전적인 요소를 중시하였다. 여기에서 슈타이너는 정신적 경험과 유전적 요소 중간에 해당하는 것을 ‘기질’이라 하였다. 그는 고대 서양의학의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B.C, 460~377)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에 대한 ‘기질론’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인간의 기질을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의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인간은 이 네 가지 기질을 다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특징적인 한 기질만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각 학생들의 기질을 바르게 판단하여 그에 알맞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슈타이너가 강조한 것은, 학생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주는 개념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주된 기질을 판단하여 그 기질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① 다혈질

다혈질은 현재의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때에 따라 쉽게 변한다.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해 순수하고 맑은 모습을 보인다. 솔직하고 쉽게 편견을 갖지 않으며 친화력이 뛰어나다. 현재에 충실한 다혈질은 심사숙고를 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어 덤벼거리기 쉽고, 일의 끝맺음에 있어 완벽성이 떨어진다.

② 점액질

점액질은 차분하며 마음이 평안하다. 순간적인 상황이나 감정에 휩쓸리는 일이 적으며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 관대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소비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경향이 있다. 또 게으르고 행동이 느리다.

③ 우울질

우울질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을 보인다.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의지가 강하고 일의 결과보다는 탄탄한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걱정이 많고 상처를 받기 쉬운 우울질은 마음의 여유가 모자라고 자신 뿐 아니라 주위의 분위기도 가라앉히는 경향이 있다.

④ 담즙질

담즙질은 열정적이고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이 넘친다. 주위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 불평을 내색하지 않고 스스로 이겨내려는 힘이 강하다. 활동적이고 당황하지 않는 차분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남에게 자신을 강요하며 폭력성을 보이기도 한다.

2.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

1) 자유 발도르프 학교(Free Waldorf School)

(1)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설립

‘자유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 9월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에 의해 세워진 독일 슈투트가르트(Suttgart)의 대안학교이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감명 받은 발도르프 아스토리아(Waldorf-Astoria)담배공장 운영자인 에밀 몰트(Emil Molt)가 슈타이너에게 직접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을 맡아주길 바랐고, 슈타이너가 이를 받아들여 ‘자유 발도르프 학교(Free Waldorf School)’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개설되었다. 발도르프 학교는 12년 과정의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개념으로 초등학교와 상급학교로 구성이 나뉜다. 초창기 발도르프 학교는 전교생 256명과 12명의 교사로 이루어졌다.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가 집권했던 때(1938~1945)에는 정권의 압력으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거나 운영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히틀러 집권이 막을 내리고서 ‘자유 발도르프 학교’는 활발히 교육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독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발도르프 학교가 설립되었고,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지금까지도 각 국의 자유 발도르프 학교들은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각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2)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

‘자유 발도르프 학교’라는 이름에서도 나타내듯이 여기서는 학생들 각자의 내적 세계에 존재하는 의지와 감정, 사고의 힘을 밖으로 끌어내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의 성장을 강조한다.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교육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받도록 노력해야한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설립된 ‘자유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이 이루어진다.

① 에포크 수업(Epoche Unterricht)

슈타이너는 학교 교육의 시간적 구성과 내용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데에도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며 ‘에포크 수업’을 만들었다. 이는 ‘주기 집중 수업’으로 한 주기는 보통 3~6주정도이고, 그 기간에는 대략 2시간에 걸쳐 같은 과목만 수업한다. 슈타이너는 특히 오전 시간대에 교육이 학생들에게 잘 흡수될 것이라 생각하여 매일 오전 8~10시에 에포크 수업을 구성하였다. 에포크 수업은 한 과목만을 일정 기간 동안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과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집중력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한 과목의 수업기간이 끝나고 타 과목을 공부할 때에는 그 전에 공부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슈타이너는 이 때에 발생하는 ‘망각’의 힘 역시 중요하게 여겼다. 다시 에포크 수업의 기간이 돌아왔을 때, 전에 배웠던 것을 생각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지식 세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8년 담임제

자유 발도르프 학교는 입학하여 8학년까지 한 명의 담임제로 시행된다. 이는 앞서 ‘삼단계 교육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슈타이너가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7년을 하나의 주기로 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담임을 한 번 맡게 되면, 오랜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전달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부모님 외에 신뢰감 및 유대감을 형성하며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준다. 항상 이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문제가 생길 시 담임이 교체되는 수도 있다.

③ ‘나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수업

일반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수업에서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매 수업마다 그 시간에 했던 활동이나 교사의 설명을 통해 배운 것을 자신의 노트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방식으로 ‘나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업내용에 대한 집중력과 애착이 길러진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만들

어진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고, 교사들로 하여금 다음 수업을 계획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준다.

④ 포르멘(Formen) 교육

독일어로 ‘형태’의 의미를 갖는 포르멘은 하나의 교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다양한 수업에서 행해지는 ‘형태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기’ 시간이다. 슈타이너는 어린이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 쓰는 것이 선행되어서는 안 되고 어린이 자신의 감각으로 글자를 체험하며 마음으로 글자를 받아들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학년부터 이루어지는 이 수업은 글자를 학습할 때 뿐 아니라, 직선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형태를 그리고 거기에 색을 칠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각자 내면에 존재하는 기질을 발휘하게 된다.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빵의 외적인 모양을 ‘형태’라고 정의 내린다. 하지만 포르멘 교육에서는, 밀가루 반죽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스트로 인해 부풀어 오르며 거기에 여러 가지 맛을 내는 다양한 재료가 첨가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형태’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학생들이 ‘형태’를 그리는 시간을 통하여 그 안에서 시간과 공간감을 느끼고 그리는 대상과 함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포르멘’ 교육인 것이다.

2)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

(1) 음악교육의 목적

슈타이너는 가창, 감상, 악기연주 등 음악의 여러 측면을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가르친다면 영혼의 기능, 즉 의지·감정·사고가 조화롭게 발달한다고 보았다. 또한 영혼의 발달 뿐 아니라 인간성 형성에도 음악은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은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슈타이너 교육사상에서 중시하는 예술교육을 위한 것으로서, ‘예술은 곧 인간교육이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¹⁵⁾ 슈타이너에 의하면 인간은 음악

15) 함희주(1998), “슈타이너의 교육이념에 의한 발도르프(Waldorf)학교의 음악교육”, 한국음악교육학회, 「음악교육연구 제17집」, p. 5.

을 통해 감정을 자신의 내면으로 끌어들이며, 각자에게 알맞은 감정은 내면을 안정시키고 이것이 곧 주의집중을 돕는다. 안정된 내면은 인간의 신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유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음악’교과 시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수업이 음악과 함께하며 이를 통해 음악이 곧 학생들의 생활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음악교육의 특징

① 기질론에 따른 악기교육

앞서 ‘교육 예술론’에서 인간의 기질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슈타이너의 음악교육에서는 각 기질에 따라 적합한 악기를 제안하였다. 연주할 때 어떤 악기든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슈타이너는 기질에 따른 악기교육에 큰 관심을 가졌다. 학생들은 2학년부턴 악기를 배우게 되는데, 학교에서 각 학생들의 기질과 가장 잘 맞는 악기를 제공함으로써 그 악기를 배우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교사가 기질에 따른 악기를 교육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기질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악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슈타이너의 ‘기질론’에 따르면 다혈질은 하늘을 보며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관악기를 배우는 것이 좋다. 다혈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가 악기연주에 작용되기 더 쉬우므로,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현악기나 피아노를 접하는 것도 좋다.

우울질은 현악기인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섬세하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낭만파의 곡을 다루어 자신의 내면으로 곡을 소화하는 과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액질은 비교적 처음에 음을 나타내기 쉬운 피아노와 같은 건반악기를 배우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배워가는 과정에서 점차 인내를 경험하도록 교사가 지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담즙질은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며 표현할 수 있는 타악기가 좋다.

② 음악을 통한 감정교육

교육예술론의 ‘삼단계 교육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기(7~14세)는 인간의 감정

이 두드러지게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좋고 싫음, 기쁘고 슬픈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사랑, 존경, 질투, 반항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감정이 발달한다. 이러한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은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모든 과목에서 행해지지만 특히 음악교과가 감정교육에는 가장 부합된 교과로 보았다. 6~8학년에는 각 학년에 따라 음악가 한 명씩을 지정하여 음악교육이 이루어진다. 6학년에는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7학년에는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8학년에는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를 배우게 된다. 이 교육은 각 음악가의 생애와 그들의 특징 일화 또는 그들이 만든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학생들이 직접 접함으로써 위대한 인물에 대한 존경심을 비롯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③ 전자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음악교육

오늘날 전자매체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보든 신속하게 제공해 준다. 음악교육을 할 때에도, 전자매체를 사용하여 쉽게 음악을 찾아들을 수 있고 원하는 음악을 녹음하여 사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편리함을 제공받는다. 하지만 음악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순수성과 총체성은 전자매체를 거쳐서 오게 되면 언제나 그 원래의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수업에서는 전자매체, 즉 녹음기나 텔레비전, VTR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¹⁶⁾ 슈타이너는 전문적인 연주기술이나 발달된 음향효과를 사용한 교육이 아닌 교사와 학생들 간의 친밀감 안에서 형성되는 인간적인 관계성을 더 강조하였다.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라이어(Lyre)를 배우고, 3학년이 되어 피아노를 배우게 된다. 또한 고학년이 되어서는 오케스트라에 소속되는데 이처럼 자유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고 자신의 귀로 듣는 시간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전자매체의 부재는 음악교사의 즉흥적이고 창조적인 수업 구성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16) 임성화(2000), 전계서, p.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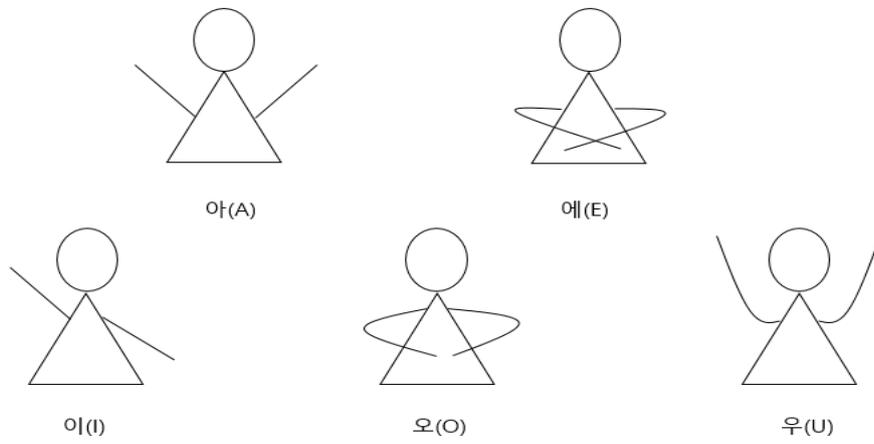
④ 음악 오이리트미(Music Eurythmie) 교육

슈타이너는 어린 아이가 걷기 시작하여 말하고 사고하기까지의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발달과정에서, ‘움직임’이 인간의 발달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슈타이너는 ‘전신을 움직이는 교육’인 오이리트미를 학생들의 입학과 동시에 졸업하기까지 1주일에 두 번씩 수업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오이리트미’는 그리스어로 ‘Eu-’(아름다운)와 ‘Rythmus’(리듬)가 합쳐짐으로써, ‘아름다운 리듬’이란 뜻을 갖는다. 소리(음)는 인간에 귀로는 들을 수 있으나 눈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악기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음악이 된다. 이처럼 슈타이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어떤 교과를 공부하더라도 그 교과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입식의 ‘청음’교육과는 다른 시각으로 오이리트미 교육을 바라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새가 하늘에서 나뭇가지를 향해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와 함께 선생님이 한 음씩 건반을 눌러줄 때 어린아이들은 그 안에서 새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음을 자신의 영혼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을 또 다시 신체로 표현함으로써 영혼과 신체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이리트미 교육을 통해 슈타이너는 음이 머리가 아닌 감성에 작용하는 교육을 펼쳤다. 음악의 출발은 어디까지나 음이 감성에 작용하여, 그것이 어린이의 몸을 통한 표현이 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어린이의 몸 그 자체도 하나의 악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⁷⁾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이리트미가 자유롭게 주관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에 한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인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먼저 5개의 모음을 양팔로 표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훈련이 되면 자음과 단어(낱말)순으로 표현하는 것을 훈련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점차 노래나 시처럼 복잡한 것을 신체의 움직임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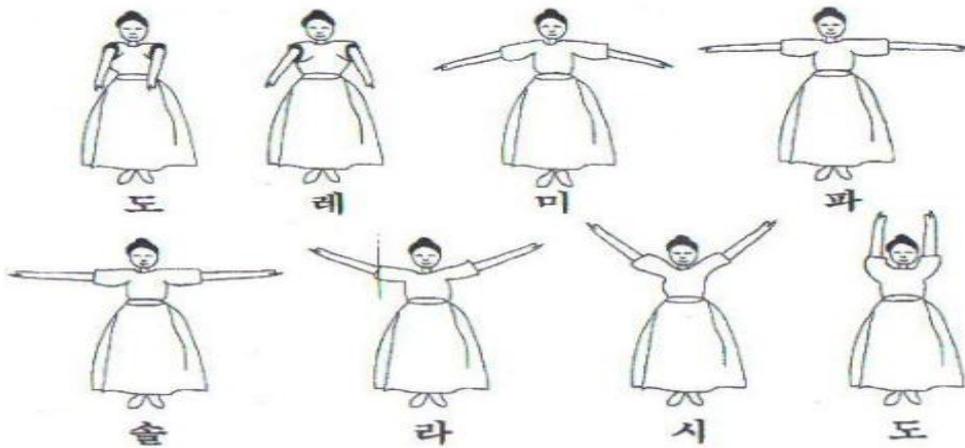
다음의 [그림 II-1]는 모음을 오이리트미로 나타낸 것이며, [그림 II-2]는 음계를 오이리트미로 나타낸 것이다.

17) 子安美知子(1988), 최시원 역, 「슈타이너 학교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p. 67

[그림 II-1] 모음 오이리트미



[그림 II-2] 음계 오이리트미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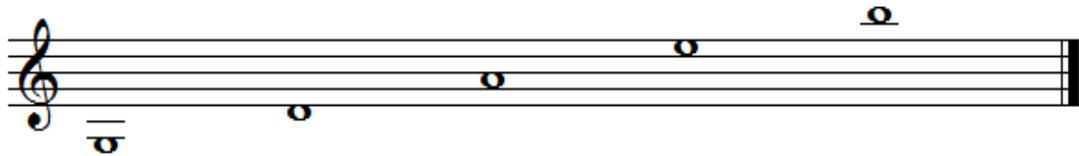


18) 김형미(2007). 「오이리트미 교육법을 활용한 수업방안」,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p. 45.

⑤ 펜타토닉(Pentatonik)

‘펜타(Penta)’는 그리스어로 숫자 5를 뜻 한다 따라서 ‘펜타토닉’은 다섯 개의 음으로 구성된 음계를 가리킨다. 이것은 반음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데, 슈타이너는 반음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부적절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9세까지 펜타토닉을 사용한 음악교육을 강조하였다. 자유 발도르프 학교에서 사용하는 ‘펜타토닉’은 슈타이너가 어린이들의 심리적 변화와 영혼의 상태를 음악적인 수단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개발한 ‘레, 미, 솔, 라, 시(D,, E, G, A, B)’로 구성된 음계를 말한다. 이는 라(A)음을 중심으로 하여 5도씩 두 번 상·하행 하여 얻게 되는 음들이다.

<악보 II-1> 5음 음계



옥타브는 음악적으로 처음과 끝을 명확하게 한 완결성을 가진 음계이다. 어린이는 아직 대지에 밟고 선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영혼이 아직 중력과 무관한데서 떠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9세까지의 어린이의 내적 상태에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치 그레고리안 성가가 중세 사람들의 영혼에 가자 잘 맞았듯이, 그리고 그 후에 옥타브, 장조, 단조가 인간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듯이 어린이는 그 연령에 가장 알맞은 펜타토닉을 음악 체험으로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¹⁹⁾

‘펜타토닉’을 사용하여 음악을 만들 때 규칙적인 이론은 필요하지 않다. 5개의 음을 어떻게 배열하더라도 이질적인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 이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펜타토닉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어린이를 위한 노래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슈타이너가 펜타토닉을 사용하여 음악 교육을 실

19) 함희주(1998), 전계서, p. 11.

천한 이유를 알 수 있다.

⑥ 라이어(Lyre) 레슨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악기교육에서는 라이어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 이 악기는 슈타이너의 음악관에 따라 어린이를 위하여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 두 옥타브 안의 레, 미, 솔, 라, 시(D, E, G, A, B)로 한정된 음역대를 갖는다. 라이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어린 아이들이 훌륭하게 악기를 다루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기에서 나오는 음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들리는 자연의 소리를 악기로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슈타이너는 이미 존재하는 곡의 연주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작곡하여 연주하는 것이 라이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II-3] 라이어

(3) 학년별 음악교육

① 1~6학년의 음악교육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학생들은 교사를 따라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학년 때부터 라이어 연주법을 배우고, 펜타토닉으로 이루어진 노래를 즉흥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펜타토닉은 아이들 스스로 듣기 좋은 울림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즉흥 연주하는 데에 자신감을 준다. 그동안의 음악 수업은 악보나 교과서가 필요 없었으나 3학년이 되면 기보법을 배우고, 펜타토닉

외에도 다양한 음정을 배운다. 또 화성과 조성 등 음악의 틀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되고 리듬을 배움으로써 탬버린이나 트라이앵글, 북, 징 등의 타악기로 리듬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4학년 말이 되면 학생들은 조표와 음계와의 관계를 정확히 습득하고, 이명동음의 개념도 익힌다. 단성부의 돌림노래와 단순한 카논을 배운 학생들은 5학년이 되어서는 다성 음악을 배운다. 5학년이 되면 학급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부활절 행사나 학교 행사에서 연주를 하기도 한다. 6학년에는 ‘악기론’ 수업을 하는데 이는 현악4중주와 같은 악기연주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시각적으로 크기에서부터 어떻게 차이를 지니는지, 상이한 소리들이 악기의 현의 두께와 어떤 관련이 있고 활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다.²⁰⁾ 자유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물리학 시간에 이미 악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진다. 그러므로 악기론 수업은 음악이 타 교과와 연계되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또 슈타이너는 6학년부터 음악시간에 특정 작곡가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였고, 6학년에 적합한 작곡가로 모차르트를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학년이 거듭될수록 다양한 작곡가와 악기, 그리고 그에 따른 이론과 음악적 상식을 접하면서 학생들 내면에 존재하는 음악 세계의 폭이 넓어진다.

② 7~8학년

7학년 무렵 학생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인 변화를 비롯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신체 뿐 아니라 내적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가치관이 정립되는 혼란스러운 시기이므로 교사 역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슈타이너의 발달단계에 따르면 이 시기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이 발달한다. 따라서 그는 감정을 울리는 데에는 장조보다 단조가 더 유리하다고 여겨 단조의 음악을 많이 다루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7학년이 되어가면서 학생들은 예술적인 감각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리듬·박자·멜로디 등 음악적 요소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슈타이너는 이 시기 학생들에게 위인의 전기(Biography)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7학년 학생들에게 음악가 중 슈베르트를 배우도록 하였는데, 슈베르트는

20) 임성화, 전계서, p. 67.

낭만파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며 ‘가곡의 왕’으로 불린다. 슈베르트는 시와 음악을 결합함으로써 학생들의 감정 발달에 적합한 곡을 다수 작곡하였는데, 슈타이너는 그러한 그의 음악과 삶을 학생들의 내면으로 받아들이도록 충분히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슈베르트 교육에 이어 8학년이 되면 베토벤을 배운다. 베토벤은 신체적 장애라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고전과 음악과 낭만주의 음악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로 학생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서 주는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수많은 ‘위대한 사람’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며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고, 그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내다볼 줄 아는 지성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교훈과 함께 ‘예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심오한 그 어떤 것.’이라는 예술적 관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슈타이너는 강조하였다.

③ 9~12학년

7~8학년 때에는 음악가의 생애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 시기에는 시대별 ‘음악사’를 집중적으로 배운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으로 시작하여 고전주의 음악과 낭만주의 음악, 마지막으로 20세기 음악을 각 학년별로 1년씩 다룬다.

슈타이너는 이 시기 학생들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음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음악사’ 수업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지도한 것 역시 학생들의 비평 능력과 확장된 사고를 통하여 음악에 대한 예술적 직관력을 기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로크 시대 음악에서는 형식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작품 이해를 지도한다. 음악에 내재된 규칙을 학생들이 발견하고, 나아가 발견한 규칙성을 이용하여 즉흥적으로 표현하고 연주를 하는데 까지 이르도록 한다. 또, 이러한 음악의 고유한 특성을 깨닫고 즉흥연주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음악 안에 사용된 음악 이론도 필연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습득된 이론 역시 바로크 시대 음악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어 학생들의 사고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 시대의 음악어법과 특징,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음악이론을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사’ 수업이다.

11학년 무렵에는 학생들의 감수성이 더욱 풍부해진다. 자신만의 내면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때이며, 이 때에 낭만주의 시대 음악을 배우면서 자신의 세계와 감수성을 더 확장시키게 된다. 이 시기에는 ‘예술사(history of art)’ 수업이 에포크 수업으로 진행된다. 예술사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예술이 오래전부터 인간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받았으며 각 시대의 사회나 문화, 정치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역사적으로 통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예술사 수업은 학생들이 음악을 좁은 교과서로서가 아닌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더 본질적이고 통합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지적 근거를 제공한다. 무엇을 통해서 변혁과 변형,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는 어떤 과제를 떠맡고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²¹⁾

또한 슈타이너는 9~12학년 학생들은 전반적인 음악수업에 걸쳐 장·단조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겪는다고 보았다. 단조가 무조건 슬픈 감정을 유발하거나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낸다는 생각을 벗어나 안정적이고 고요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변하는 것이다. 또 자유 발도르프 학교에서 이 시기 학생들은 학급 내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벗어나 상급학년 전체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등 공연 활동을 하게 된다. 독주·독창을 할 수도 있고 그룹을 구성하여 연주를 할 수도 있는데, 슈타이너는 이처럼 공연을 위한 총체적 책임을 직접 맡는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친밀감 형성과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서 오는 사회성 발달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1) 임성화, 상계서, pp. 79~80.

3.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독일의 대안학교인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내용 및 방법을 우리나라 공교육 현실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논문의 핵심은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적용한 ‘중학교’음악교과 지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본 장에서는 ‘중학교’ 음악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을 정리하여 다음 장에 제시되는 음악교과 지도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내용 체계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표현, 감상, 생활화가 속하는 각 ‘영역’에 알맞은 내용체계를 제시하였는데,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의 5개 항목으로 늘어나 각 학급별로 시행되어야 할 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교과 ‘내용 체계’의 각 항목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영역’은 음악교과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표현·감상·생활화의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표현·감상·생활화 각 영역은 음악 교과의 성격을 잘 알려주는 가장 큰 틀이며, 본 논문에 제시되는 교수·학습 지도안 구성의 성격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핵심 개념’에서는 음악교과 교육을 위한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제시하고, ‘일반화된 지식’은 음악교과 학습과정에서 알아야하는 일반적인 지식을 설명한다. ‘내용 요소’는 해당 학년(군)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음악 교육 내용이며, ‘기능’은 해당 영역의 교육 후 학생들이 성취하였거나 성취하기를 희망하는 음악교과의 다양한 기능을 제시한다.

다음의 <표. II-1>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고, <표. II-2>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음악교과의 ‘내용 체계’이다.

<표. II-1>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 ‘내용 체계’²²⁾

영역	내용 체계
1. 표현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2. 감상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3. 생활화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표. II-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 ‘내용 체계’²³⁾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표현	· 소리의 상호 작용 · 음악의 표현 방법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소리의 상호 작용과 음악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여 노래, 연주, 음악 만들기, 신체표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음악의 구성 자세와 연주법	· 노래 부르기 · 악기로 연주하기 · 만들기 · 표현하기
감상	· 음악 요소와 개념 · 음악의 종류 · 음악의 배경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하여 음악을 이해하고 비평한다.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 음악의 역사 문화적 배경	· 구별하기 · 표현하기 · 설명하기
생활화	· 음악의 활용 · 음악을 즐기는 태도	음악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음악이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	음악과 행사 음악과 산업 세계 속의 국악	· 참여하기 · 평가하기 · 조사하기 · 발표하기

22)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제2011-361호,(별책12)」(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p. 5.

23) 교육부, 상계서, p. 5.

2) 성취기준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음악 교과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음악적 지식 및 기능과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능력을 총괄한 학습 기준이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표현·감상·생활화’ 각 영역 내용 체계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표현·감상·생활화’ 각 영역에 따르는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제시되어있다.

다음의 <표. II-3>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1~3학년군 성취기준이다.

<표. II-3>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 ‘성취기준’²⁴⁾

영역	내용 체계	중학교 1~3학년군
표현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1)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 (2)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1)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3) 악곡의 특징을 살려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4) 예술가곡, 민요, 판소리 한 대목, 가곡의 초장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1)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만들 수 있다. (2) 주제에 맞는 노랫말과 극본을 만들어 음악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가락을 만들 수 있다.
감상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1)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1)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 음악을 듣고 현대 사회에서 음악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생활화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1)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1) 세계 속에서 우리 음악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4) 교육부, 상계서, p. 6.

본 논문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하는 기준이 되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표현’영역의 성취기준

중학교 음악 교과와 ‘표현’ 영역에서는 음악을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규칙이나 이론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가창이나 기악활동, 몸의 움직임, 음악 작품 만들기 등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 창의적 능력과 음악성을 기르는 것에 의의를 둔다.

다음의 <표. II-4>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표현’영역의 성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표. II-4> 중학교 음악교과 ‘표현’영역 성취기준²⁵⁾

- | |
|---|
| [9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 [9음01-02]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
| [9음01-03]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든다. |
| [9음01-04] 주제에 맞는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한다. |
| [9음01-05]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한다. |

② ‘감상’영역의 성취기준

중학교 음악교과와 ‘감상’영역에서는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와 개념을 파악하고, 기악 음악의 다양한 연주 형태를 알도록 한다. 또 역사·문화적 배경에 맞추어 음악을 이해함으로써 음악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시키는 것에 의의를 둔다.

다음의 <표. II-5>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감상’영역의 성취기준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25) 교육부, 상계서, p. 14.

<표. II-5> 중학교 음악교과 '감상'영역 성취기준²⁶⁾

- [9음02-01]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 [9음02-02]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 [9음02-03]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③ '생활화'영역의 성취기준

중학교 음악교과의 '생활화' 영역에서는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음악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고 음악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것을 알도록 한다. 또 음악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구조 등의 음악 관련 산업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안에서 국악이 지니는 위상을 통해 국악의 가치를 아는 것에 의의를 둔다.

<표. II-6>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생활화'영역의 성취기준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II-6> 중학교 음악교과 '생활화'영역 성취기준²⁷⁾

- [9음03-01]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다.
- [9음03-02] 음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 [9음03-03] 세계 속의 국악의 위상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26) 교육부, 상계서, p. 15.

27) 교육부, 상계서, p. 16.

Ⅲ. 음악교과 지도방안 모색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년별 ‘표현, 감상, 생활화’ 각 영역의 ‘성취기준’을 한 가지씩 선택하여 그에 부합하는 슈타이너 교육철학의 구체적인 교수법과 연계시킴으로써 중학교 음악교과 지도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1. ‘표현’영역 지도방안 모색

1) ‘표현’ 영역 교수·학습 단위 계획

‘표현’ 영역에서는 중학교 1학년(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의 예술가곡 ‘보리수’를 제재 곡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의 표 <표. Ⅲ-1>는 ‘표현’영역의 교수·학습 단위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Ⅲ-1> ‘표현’ 영역 교수·학습 단위 계획

대상 학년	중학교 1학년 (7학년)	
제 재 곡	보리수 (Die Lindenbaum)	
성취기준	9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학습 목표	1차시	- 슈베르트의 ‘보리수’를 통해 ‘예술가곡’의 특징을 안다. - 시의 내용을 생각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
	2차시	- 시의 내용을 이해하여 ‘보리수’를 노래하고 나만의 시를 창작한다.

(1) 제재 곡 설명

‘보리수’는 슈베르트의 연가곡²⁸⁾집 “겨울 나그네(Winterreise Op.81)”의 5번째 곡으로, “겨울 나그네”는 슈베르트가 빌헬름 뮐러(Wilhelm Müller, 1821~1824)의 시에 노래를 붙인 곡이다. D Major의 3/4박자 곡인 이 노래는, 실연한 청년이 연인에게 이별을 고하고 눈보라 치는 들판을 향해 방랑의 길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황량한 들판에서 방황하는 청년의 마음은 힘들고 괴로워 죽을 것만 같다. 정처 없이 떠나는 여행 중에 체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24개의 노래로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절망적인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노래인 “거리의 악사(Der Leiermann)”에 슈베르트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기 자신을 투영하기도 한다.

“겨울 나그네”의 ‘보리수’에서는 실연과 추위의 아픔에 지친 청년이 성문 앞 보리수나무 밑에서 지난 시절 나무로부터 위안을 받고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추억을 상기하며 마을과의 작별을 고하는 데에 있어 여운을 남기고 있다.

(2) 슈타이너 음악교육 철학을 적용한 교과 지도방안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표현’영역의 성취기준 “9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²⁹⁾에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지도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슈타이너는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이 ‘시 낭송’과 ‘명상’을 통하여 수업에 임하는 자신의 자세를 가다듬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슈타이너가 창작한 시의 의미를 생각하며 학생들이 낭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1차시 수업에서는 슈타이너의 시 ‘평화의 춤’을, 2차시 수업에서는 ‘깜깜한 밤이 지나고’를 낭송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변성기와 같은 신체의 변화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예전에 부르던 음역대의 노래를 소화하기가 힘들어진다. 때문에 슈타이너는 학생들이 한 동안은 악기 반주에 맞춘 독창 또는 제창 활동을 할 것을

28) 연가곡: 곡의 내용이나 특성에서 연관성을 갖는 몇 개의 가곡이 각각 독립된 완결성을 가지면서 하나로 묶인 작품.

29) 교육부, 상개서, p. 14.

강조했다. 제재 곡 ‘보리수’ 역시 성부가 나누어지지 않아 독창 또는 제창의 형태로 노래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시기 학생들이 노래하기에 적합하다.

슈타이너는 7학년에 배워야 할 위대한 작곡가로 슈베르트를 뽑았으며, 그의 대표 장르 ‘예술가곡’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 장르는 시에 음악을 결합하였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타 교과와 음악교육의 통합교육을 강조하였던 슈타이너의 교육법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또,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제재 곡의 원곡을 감상하며 피아노 반주가 시의 내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파악하면서 ‘예술가곡’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노래의 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악 그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슈타이너의 철학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슈타이너는 ‘타 교과와의 통합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1차시 수업에서 ‘제재 곡을 듣고 떠오르는 심상 그리기’ 활동에서 ‘미술’교과와의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고, 2차시 수업의 ‘창작 시 만들기’를 통하여 ‘문학’교과와의 통합 교육이 이루어진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이 시기 학생들은 영혼이 발달하고 특히 그 기능 중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이 풍부해진다. 따라서 수업에서는 다양한 교육법을 사용하여 감정 발달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1차시 수업에서 ‘슈베르트의 일화를 통해 그의 심정 이해하기’, ‘제재 곡 속 주인공의 마음 이해하기’,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나누기’를 통해 감정 발달을 위한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2차시 학습에서는 ‘또래 학생의 창작시를 읽고 공감하기’와 ‘제재 곡의 주인공과 관련지어 자신의 모습 생각하기’를 통해 감정 발달을 위한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슈타이너는 이 시기 학생들이 예술적인 감각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리듬·박자·멜로디 등 음악적 요소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 악보에 제시된 음악의 요소를 파악하여 노래하는 데에 용이할 것이므로 1차시 수업에서 제재 곡의 음악적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끝으로, 학생들이 제재 곡을 통한 생각과 느낌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여 음악 교과서를 구성하는 작업은 훗날 제재 곡에 관한 기억을 수월하게 해주고 학생들의 창의력 성장을 돕는다. 따라서 1차시 수업에서의 ‘제재 곡을 들으며 떠오르는 심상 그리기’활동과, 2차시 수업에서의 ‘창작 시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자신만의 음악 교과서를 구성 한다.

이와 같은 교과 지도방안을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II-2>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표현’영역의 ‘성취 기준’ 중 본 장의 교수·학습 지도안에 적용한 것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고, <표. III-3>은 ‘표현’영역에 반영한 슈타이너의 음악교육 교수법을 제안한 것이다.

<표. III-2> ‘표현’영역 교수·학습 지도안에 적용한 ‘성취기준’

성취기준	9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

<표. III-3> 슈타이너의 음악교육 철학을 ‘표현’영역에 적용한 교수법

슈타이너 음악교육 철학	수업시작을 알리는 시 낭송	제창을 강조하는 수업	슈베르트의 삶과 ‘예술가곡’ 이해	곡의 본질적특성 파악하기	타 교과와 통합수업	음악요소 습득 용이 (리듬 백차등)	감정 발달 수업	자신만의 교과서 만들기
--------------------	----------------------	-------------------	-----------------------------	---------------------	---------------	---------------------------	----------------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표현’영역 ‘성취기준’에 슈타이너의 음악교육 철학을 적용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2) '표현'영역 교수·학습 지도안 1차시

과목	음악	대단원	독창·제창	대상	7학년 (중학교 1학년)
소단원	예술가곡	차시	1/2	지도교사	이로사
성취기준	9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학습목표	1. 슈베르트의 '보리수'를 통해 예술가곡의 특징을 안다. 2. 시의 내용을 생각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학생		
	PPT, NWC, 음악노트		음악노트, 필기도구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활동		슈타이너의 교육철학	
		교사	학생	교육철학	
도입 (8분)	인사	<p>◆ 첫 인사</p> <p>: 시 낭송으로 수업을 시작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평화의 춤> - 루돌프 슈타이너</p> <p>영혼은 소망의 싹을 틔우고 의지는 행함으로 싹을 키우며 생명은 열매로 여물어 갑니다.</p> <p>나는 내 운명을 느끼고 내 운명은 나를 찾습니다. 나는 내 별을 느끼고 내 별은 나를 찾습니다. 나는 내 목표를 느끼고 내 목표는 나를 찾습니다.</p> <p>내 영혼과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입니다.</p> <p>생명은 내 주위를 더욱 환하게 밝히고 생명은 나에게 더 큰 무게로 다가오며 생명은 내 안에서 더욱 풍요로워집니다.</p> <p>평화를 추구하세요. 평화 안에 머무세요. 평화를 사랑하세요.</p> </div>		<p>(오늘의 시 낭송 담당 학생이 자리 에서 일어나 화면을 보며 시를 낭송한 후, 다함께 인사한다)</p> <p>· 시 낭송으로 수업을 시작한다.</p>	

	문제 인식	<p>◆ 동기유발</p> <p>◇ ‘보리수’의 작곡가 슈베르트 (Franz Schubert, 1797~1828)의 일화를 소개한다.</p>  <p>슈베르트는 평소 베토벤을 매우 존경하였고 그와의 만남을 고대했으나 소심한 성격 탓에 베토벤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슈베르트는 베토벤의 청력상실로 인해 슬픔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두 사람이 만날 기회가 주어졌고, 첫 만남에서 슈베르트의 악보를 본 베토벤은 슈베르트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p> <p>“자네를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내 명은 이제 다 되었네. 자네는 분명 세상을 빛낼 수 있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것이네. 그러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말게..”</p> <p>하지만 슈베르트는 베토벤이 병마와 싸우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괴로운 마음에 그 자리를 뒤쳐나왔다.</p> <p>그로부터 일주일 후 베토벤은 세상을 떠났다.</p>	(베토벤을 만나기 전 후 슈베르트의 심경을 생각해본다)	· 슈베르트의 일화를 통해 감정을 발달시킨다.
	학습 목표 제시	<p>◆ 학습목표</p> <p>1. 슈베르트의 ‘보리수’를 통해 예술가곡의 특징을 안다.</p> <p>2. 시의 내용을 생각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p>	(학습 목표를 인지한다.)	
		<p>◆ 내용학습</p> <p>◇ ‘보리수’ 음악적 구성 이해 : 제재 곡의 음악적 구성을 설명한다.</p>	(제재 곡 악보를 보며 음악적 구성을 파악한다.)	· 7학년 시기에는 예술적 감각이 자연스럽게 발달하여 음악적 요소 습득이 용이하다.

전개 (30분)	문제 해결	<p>1. 조성 : 라장조 (D Major) ≡ 올림표(#)가 파(F), 도(C) 자리에 붙어 조성이 형성됨.</p> <p>2. 박자 : 3/4박자</p> <p>3. 주요 리듬</p> <p>· ♩ ♪ ♪ ♪</p> <p>· ♩ ♪ ♪ ♪</p> <p>※ 셋잇단음표 (triplet) : ♩, 본래 둘로 2등분해야 할 음표를 셋으로 등분한 음표.</p> <p>4. 노래형식 : 제창 ≡ 같은 가락을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노래하는 노래 형태</p> <p>◇ ‘보리수’ 원곡 감상 : 제재 곡의 원곡을 들려준다.</p> <p>—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표현한 부분 — </p> <p>◇ 제재 곡 가사(시)의 내용 이해하기 : 가사의 한 소절씩 설명한다.</p>	<p>(보리수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묘사한 전주 부분에 유의하여 원곡을 감상하며, 피아노 반주가 나타내는 자연의 모습을 느낀다.)</p> <p>(겨울 나그네의 심정을 이해하며 음악노트에 느낌을 표현한다.)</p>	<p>· 슈베르트의 ‘예술가곡 교육에서, 시의 내용이 어떻게 음악에 나타나는지 알도록 한다.</p> <p>· 제재 곡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감정을 발달시킨다.</p> <p>· 타 교과(미술)와 통합교육을 한다.</p>
-------------	----------	--	---	---

	<p>* '보리수' 가사 및 내용</p> <p>(1절)</p> <p>가사 ☞ <u>성문 앞 우물곁에 서</u> <u>있는 보리수</u> : 나그네는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보리수나무를 만난다.</p> <p>☞ <u>나는 그 그늘 아래 단 꿈을 보았네</u> : 보리수 아래서 휴식을 취하며 위로를 받던 날들을 떠올린다.</p> <p>☞ <u>가지에 희망의 말 새겨어 놓고서</u> <u>기쁘나 슬플 때나 찾아온 나무 밑</u> <u>찾아온 나무 밑</u> : 나그네는 그 곳을 떠나려 하는데 나무는 그에게 돌아와 편히 쉬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나그네는 안식처가 되어준 나무를 상기하며 돌아선다.</p> <p>(2절)</p> <p>☞ <u>오늘 밤도 지났네 보리수 곁으로</u> : 나그네는 오늘도 보리수를 찾았다.</p> <p>☞ <u>깜깜한 어둠속에 눈감아보았네</u> :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보리수에 기대어 안식을 얻고자한다.</p> <p>☞ <u>가지는 흔들려서 말하는 것같이</u> <u>동무여 여기 와서 안식을 찾아라.</u> <u>안식을 찾아라.</u> : 보리수는 변함없이 오늘도 자신에게 기대어 마음을 평안을 얻으라고 속삭여 주는 것 같다.</p>	<p>· 자신만의 음악 교과서를 구성한다</p>
--	---	----------------------------

		<p>◇ 예술가곡 특징 정리하기 : 예술가곡의 특징을 설명한다.</p> <p>* 예술가곡 (Kunstlied) 독일의 음악학자 카를 코스말리 (Karl Kossmaly,?)가 슈베르트의 리트(lied)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1841년에 처음 사용된 용어. 피아노 파트가 성악 파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음악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가곡의 형태.</p> <p>◇ 제재 곡 부르기 : 제재 곡을 노래(독창·제창)한다.</p>	<p>(앞서 감상한 제재 곡의 원곡과, 시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가곡'의 특징을 이해한다.)</p> <p>(교사의 지시에 따라 한 소절 씩 배우고, 모둠별로 제창한다.)</p>	<p>· 노래의 가사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의 본질적인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는 것이다.</p> <p>· 변성기가 시작되는 시기 이므로 화성 적인 곡 보다 독창 혹은 제창을 지도한다.</p>
<p>마무리 (7분)</p>	<p>정리</p>	<p>◆ 형성평가</p> <p>◇ 제재 곡 속 나그네에게 '보리수'라는 안식처가 있듯이 내가 힘이 들 때 안식처가 되어줄 만한 공간이나 인물이 있는가?</p> <p>◆ 차시예고 - 창작 시 만들기.</p> <p>◆ 끝인사</p>	<p>(자신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장소나 인물을 생각한 뒤, 발표한다.)</p> <p>(자신이 직접 지을 시의 주제를 생각한다.)</p> <p>(오늘 배운 제재 곡 1절을 노래하고 인사로 마무리한다.)</p>	<p>· 자신의 경험을 통한 교육으로 감정을 발달시킨다.</p>

3) '표현'영역 교수·학습 지도안 2차시

과목		음 악	대단원	독창 · 제창	대상	7학년 (중학교 1학년)
소단원		예술가곡	차시	2/2	지도교사	이 로 사
성취기준		9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학습목표		1. 시의 내용을 이해하여 '보리수'를 노래하고, 나만의 시를 만들어본다.				
학습 자료		교사			학생	
		PPT, NWC, 음악노트			음악노트 , 필기도구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활동			슈타이너의 음악 교육철학	
		교사		학생		
도입 (8분)	인사	<p>◆ 첫 인사</p> <p>인사 : 시 낭송을 한 후 인사한다.</p>		<p>(오늘의 시 낭송 담당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를 낭송한 후 다함께 인사한다.)</p>	<p>· 시 낭송으로 수업을 시작한다.</p>	
	문제 인식	<p><감감한 밤이 지나고> -루돌프 슈타이너</p> <p>감감한 밤이 지나고 햇빛이 하루를 밝혀 줍니다. 고요한 잠에서 영혼의 활력이 깨어납니다. 그대 나의 영혼이여, 저 빛에 감사드리세요. 그 속에 하느님의 힘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대 나의 영혼이여, 부디 올바르게 행동하세요.</p>		<p>(교사가 읽어주는 시를 들으며 공감하고, 감상 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p>	<p>· 또래 학생이 쓴 시를 통하여 감정을 발달시킨다.</p>	

		<p>< 단축번호 1번 ></p> <p>-나중일</p> <p>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 내 사랑하는 엄마</p> <p>전화 벨소리 울릴라치면 무슨 잔소리를 하실까 전화 받기 싫은 사람 1순위 내 사랑하는 엄마</p> <p>하지만</p> <p>내 몸과 맘 온전히 기대어 설 수 있는 그 곳, 우리엄마 품 속</p> <p>단축번호 1번 내 마음속 1번</p> <p>내 사랑하는 엄마</p> <p>◆ 학습목표</p> <p>1. 시의 내용을 이해하여 '보리수'를 노래하고 나만의 시를 만들고 발표한다.</p>	<p>(학습 목표를 인지한다.)</p>	
<p>전개 (30분)</p>	<p>문제 해결</p>	<p>◆ 내용학습</p> <p>◇ 제재 곡 노래하기. : 지난시간에 배운 보리수를 다 함께 노래한다.</p>	<p>(나그네의 마음을 떠올리며 지난시간에 배운 제재 곡을 모듬별로 제창한다.)</p>	

		<p>◇ 창작 시 만들기</p> <p>: 나의 안식처가 되는 장소나 인물을 떠올려 시를 창작하고 모듬 별로 한 사람씩 발표하도록 한다.</p>	<p>(자신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장소나 인물을 떠올리며 음악 노트에 직접 시를 창작하고 발표한다.)</p>	<p>· 자신의 경험을 통한 교육으로 감정을 발달시킨다.</p> <p>· 타 교과(문학)와 통합교육을 한다.</p> <p>· 자신만의 음악 교과서를 구성한다.</p>
<p>마무리 (7분)</p>	<p>정리</p>	<p>◆ 형성평가</p> <p>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리수'가 되어준 적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경험을 했나요?</p> <p>◆ 차시예고 - 슈만의 가곡</p> <p>◆ 끝인사</p>	<p>(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경험을 생각하며 자신의 음악 노트에 적어본다.)</p> <p>(슈만은 어떤 작곡가였을지 떠올려본다.)</p> <p>(제재 곡 1,2절을 부르고 인사로 마무리한다.)</p>	<p>· 자신의 경험을 통한 교육으로 감정을 발달시킨다.</p> <p>· 자신만의 음악 교과서를 구성한다.</p>

2. '감상'영역 지도방안 모색

1) '감상' 영역 교수·학습 단위 계획

'감상' 영역에서는 중학교 2학년(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교향곡 3번 '영웅'(Symphony No.3 in E flat Major, Op.55 'Eroica')을 제재곡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의 <표. III-4>는 '감상'영역의 교수·학습 단위 계획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III-4> '감상' 영역 교수·학습 단위 계획

대상 학년	중학교 2학년 (8학년)	
제 재 곡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Symphony No.3 in E-flat Major, Op.55 'Eroica')	
성취기준	9음02-03.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학습 목표	1차시	- 베토벤의 생애를 알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다. - 베토벤이 '영웅'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여 1악장을 감상 할 수 있다.
	2차시	- 베토벤이 '영웅'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2악장을 감상할 수 있다.

(1) 제재 곡 설명

다음의 <표. III-5>은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의 구성을 간단히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III-5>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구성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Symphony No.3 in E-flat Major, Op.55 'Eroica')				
	빠 르 기	조 성	박 자	특 징
1악장	Allegro molto - Allegro con brio	E b Major	3/4	소나타 형식의 대위법적 악장
2악장	Marcia funebre : Adagio assai	c minor	2/4	3부 형식의 장송 행진곡
3악장	Scherzo : Allegro Vivace	E b Major	3/4	빠른 스타카토로 움직이는 3부 형식
4악장	Finale : Allegro Molto	E b Major	2/4	하나의 주제를 여러 방법으로 가공하는 변주곡 형식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은 4악장 구성으로 변주곡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804년 완성되어 1805년 빈에서 초연되었다. 당시 관객들은 이 작품의 거친 분위기와 음향, 50분에 달하는 장대한 연주시간에 이질감을 느꼈고 냉담한 평가를 했다. 하지만 베토벤은 자신이 작곡한 교향곡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에로이카!”라고 대답할 정도로 제재 곡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곡에 대해 질책을 받으면서도 이 곡의 연주 시간이 길지 않게 느껴질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베토벤은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던 프랑스 혁명 당시 이를 실현해 줄 영웅이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이라 생각했고, 그에게 헌정하기 위하여 제재 곡을 만들었다. 하지만 후에 야망에 찬 나폴레옹이 자신이 직접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베토벤은 배신감에 “보나파르트”라고 적었던 악보 표지를 찢어버렸다.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는 이 곡에 대해 “교향곡

제3번은 완벽한 인격에서 우리나라의 작품이며, 감정의 유연성과 정력적인 힘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완성에의 정진이야말로 이 작품의 영웅적 성격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다.”³⁰⁾ 라고 평하였다.

(2) 슈타이너 음악교육 철학을 적용한 교과 지도방안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감상’영역의 성취기준 “9음02-03.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³¹⁾에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지도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7학년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8학년의 수업에서도 슈타이너의 ‘시 낭송’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1차시 수업에서는 슈타이너가 지은 짧은 시구를 읽고, 2차시 수업에서는 슈타이너의 시 ‘나는 세상을 바라본다.’를 낭송한다.

슈타이너는 8학년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판단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 작곡가 ‘베토벤’의 전기를 배우도록 하였다. 비극적인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여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음악을 연결하는 데에 힘을 쓴 베토벤의 업적은 학생들 영혼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시 수업에서 ‘베토벤과 관련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며 그의 심정 파악하기’와 ‘베토벤의 전기’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2차시 수업에서는 ‘하일리겐슈타트(Heiligenstadt) 유서’의 일부를 읽으며 감정 발달 교육을 지도한다. 슈타이너는 이처럼 작곡가의 삶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정 발달 교육과 더불어 그 당시의 특징적인 역사·문화적 상황을 연결 지은 제재 곡 교수법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역사 교과에서 ‘프랑스의 혁명’과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배우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제재 곡을 배운다면 학생들이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교과 뿐 아니라, 2차시 수업에서는 제재 곡이 작곡되던 당시에 활동하였던 문학작품과 작가, 미술작품과 작가를 함께 배우으로써 타 교과(문학, 미술)와의 통합교육을 이룬다.

또한 슈타이너는 사춘기를 겪는 이 시기 학생들의 감정교육을 위해 단조 음악이 도움이 된다고 여겼으므로 다양한 단조 음악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2차시에

30) 박성호(201512.08),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ahmozart님의블로그 [블로그 포스트], <http://blog.naver.com/ahmozart>

31) 교육부, 상계서 p. 15.

배우는 제재 곡 2악장은 ‘장송 행진곡’으로, 베토벤이 “나는 그의 마지막 길에 어 울리는 작품을 이미 써 두었다.” 라며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추대했던 시절에 그의 낮은 기리는 장례를 위한 곡을 미리 만들어 들을 밝힌 곡이다. c단조로 비극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며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가미된 이 곡을 8학년 학생들이 접함으로써 감정발달 교육이 이루어진다.

‘감상’영역에서도 자신만의 음악교과서를 구성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1차시 수업에서는 ‘제재 곡 1악장을 감상하여 느낀 것을 표현하기’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2차시 수업에서는 ‘자신의 묘비에 적히길 원하는 글귀 적기’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제재 곡을 연주하는 영상을 보며, 작품 하나가 연주되기까지의 과정과 작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함으로써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표. III-6>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감상’영역의 ‘성취기준’에서 본 장의 교수·학습 지도안에 적용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고, <표. III-7>은 ‘감상’영역에 적용한 슈타이너의 음악교육 교수법을 제안한 것이다.

<표. III-6> ‘감상’영역 교수·학습 지도안에 적용한 ‘성취기준’

성취기준	9음02-03.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	---

<표. III-7> 슈타이너의 음악교육 철학을 ‘감상’영역에 적용한 교수법

슈타이너 음악교육 철학	수업시작을 알리는 시 낭송	베토벤 전기교육	감정 발달 수업	역사·문화적 특징과 연결 짓기	타 교과와 통합 수업	다양한 단조음악 경험	자신만의 교과서 만들기	예술적 관념 형성
--------------------	----------------------	-------------	----------------	------------------------	-------------------	-------------------	--------------------	-----------------

이에 따라 18세기 고전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중 1, 2악장을 중심으로 1악장은 수업 1차시에 지도하며, 2악장은 2차시에 지도하도록 계획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2) '감상'영역 교수·학습 지도안 1차시

과목	음 악	대단원	작곡가의 생애 및 업적	대상	8학년 (중학교 2학년)
소단원	베토벤	차시	1/2	지도교사	이 로 사
성취기준	9음02-03.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학습목표	1. 베토벤의 생애를 알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 2. 베토벤이 '영웅'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여 1악장을 감상 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학생		
	PPT, 음악노트		음악노트, 필기도구		
학습 단계	학 습 내 용	교수 - 학습활동			슈타이너 교육철학
		교사	학생		
도입 (7분)	인사	<p>◆ 첫 인사</p> <p>인사 : 시 낭송으로 시작</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확고하게 세상에 선다. 확신을 갖고 나의 길을 가며, 내 존재의 깊은 곳에 사랑을 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희망을 안고 내 생각에 자신감을 새긴다.</p> </div> <p>◆ 동기유발</p> <p>◇ 영화 '카핑 베토벤'(Copying Beethoven)의 특정 부분(베토벤이 안나 홀츠를 따라 지휘하는 장면)을 보여준다.</p> <p>* '카핑 베토벤' 줄거리 : 베토벤이 청력을 잃게 되면서, 카피스트인 안나 홀츠를 따라 지휘</p>	(오늘의 시 낭송 담당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구를 낭송한 후, 다함께 인사한다.)	· 시 낭송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문제 인식		<p>◇ 영화 '카핑 베토벤'(Copying Beethoven)의 특정 부분(베토벤이 안나 홀츠를 따라 지휘하는 장면)을 보여준다.</p> <p>* '카핑 베토벤' 줄거리 : 베토벤이 청력을 잃게 되면서, 카피스트인 안나 홀츠를 따라 지휘</p>	(청력을 잃어 다른 사람을 따라 지휘하는 베토벤의 모습을 보며 베토벤의 심정을 생각해본다.)	· 베토벤의 일화를 통하여 감정 발달 교육을 한다.	

		<p>히는 등 음악 안에서 두 사람의 정신적인 교감을 보여준다.</p> <p>◆ 학습목표 제시</p> <p>1. 베토벤의 전기를 알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다</p> <p>2. 베토벤이 ‘영웅’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음악의 특징을 이해한다.</p>	<p>(학습 목표를 인지한다.)</p>	
<p>전개 (30분)</p>	<p>문제 해결</p>	<p>◆ 내용학습</p> <p>◇ 베토벤의 전기 : 간단하게 베토벤의 전기를 알려준다.</p>  <p>베토벤은 1770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음악가였던 그의 아버지는 베토벤이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를 바랐으므로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연습을 시켰다. 열 네 살에 공정의 오르간 연주자가 되어 평생을 얻었던 그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술에 찌들어 살아가는 아버지와 두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야 음악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천천히 만 할 줄 알았던 그의 음악 인생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그가 청력을 잃어가는 병을 알게 된 것이다. 1796년부터 귀가 멀기 시작하여 작곡하는 시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그는 끝까지 병마와 싸우며 작곡활동에 정진했다. 베토벤이 50세가 되었을 즈음에는 오로지 팔기로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1827년에 세상을 떠난다. 그의 장례식에는 3만여 명의 조문객이 찾았다고 한다.</p> <p>◇ ‘영웅’ 교향곡 배경 : ‘영웅’교향곡이 작곡된 역사. 문화적 배경을 알려준다.</p>	<p>(선생님이 알려주는 베토벤의 전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그의 업적을 마음에 새긴다)</p> <p>(역사수업에서 배웠던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의 집권 시기를 생각하며 제재 곡이 작곡될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p>	<p>· 8학년 때 베토벤의 전기교육을 하였다.</p> <p>· 타 교과(역사)와 통합한 교육을 한다.</p>



17~18세기 유럽은 군주(또는 국왕)이 어떠한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정치체제인 전제 군주제였다. 군주의 통치권은 신으로부터 부여 받았다는 '왕권 신수설'에 따라 권력을 휘두르는 이 체제를, 베토벤은 나폴레옹의 혁명을 통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리하여 나폴레옹에게 헌정하기 위한 교향곡을 작곡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웅' 교향곡이다. 하지만 나폴레옹 자신이 직접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베토벤은 이에 대해 '그도 역시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 이외의 모든 인간 위에 올라서서 독재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라며 분노하여 '보나파르트'라고 적었던 교향곡의 표지를 찢어버렸다.

◇ 제재 곡 ('영웅'교향곡 1악장) 감상

: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지휘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으로 '영웅'교향곡의 1악장을 들려준다.



(제재 곡의 작곡가인 베토벤, 작곡될 시기의 배경, 연주자들과 지휘자 등 제재 곡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바탕으로 '예술'이란 어떤 것인지 영상을 보며 생각한다.)

· 학생들 스스로 예술적 관념을 형성하는 경험을 한다.

<p>마무리 (8분)</p>	<p>정리</p>	<p>◆ 형성평가 1. 베토벤의 전기와 ‘영웅’교향곡 1악장을 듣고 글이나 그림으로 자신의 음악노트 채우기.</p> <p>◆ 차시예고 - ‘영웅’교향곡 2악장 감상</p> <p>◆ 끝인사</p>	<p>(이번 수업을 통해 기억에 남거나 느낀 것을 글 - 시 또는 신문 - 이나 그림으로 표현한다.)</p> <p>(오늘 감상한 1악장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한다.)</p> <p>(인사를 하고 마친다.)</p>	<p>· 타 교과(미술, 국어)와 통합하여 교육한다.</p> <p>· 자신만의 음악 교과서를 구성한다.</p>
---------------------	-----------	--	---	---

3) '감상'영역 교수·학습 지도안 2차시

과목	음악	대단원	작곡가의 생애 및 업적	대상	8학년 (중학교 2학년)
소단원	베토벤	차시	2/2	지도교사	이로사
성취기준	9음02-03.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학습목표	1. 베토벤이 '영웅'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2악장을 감상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학생		
	PPT, 음악노트		음악노트, 필기도구		
학습 단계	학 습 내 용	교수 - 학습활동		슈타이너의 음악 교육철학	
		교사	학생		
도입 (8분)	<p>◆ 첫 인사</p> <p>인사 : 시 낭송으로 시작</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나는 세상을 바라본다.> - 루돌프 슈타이너</p> <p>나는 세상을 바라본다.</p> <p>그 안에는 태양이 비치고 있고 그 안에는 별들이 빛나며 그 안에는 돌들이 놓여져 있다.</p> <p>그리고 그 안에는 식물들이 생기 있게 자라고 있고 동물들이 사이좋게 거닐고 있고 바로 그 안에 인간이 생명을 갖고 살고 있다.</p> <p>나는 영혼을 바라본다. 그 안에는 신의 정신이 빛나고 있다. 그것은 태양과 영혼의 빛 속에서, 세상 공간에서, 저기 저 바깥에도,</p> </div>	(오늘의 시 낭송 담당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를 낭송한 후, 다함께 인사한다)	시 낭송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문제 인식	<p>그리고 영혼 깊은 곳 내부에서도 활동하고 있다.</p> <p>그 신의 정신에게 나를 향할 수 있기를.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축복이 나의 깊은 내부에서 자라나기를.</p> <p>◆ 동기유발</p> <p>◇하일리겐슈타트(Heiligenstadt) 유서의 일부를 다함께 읽도록 한다.</p> <p>“...만약 죽음이 나의 모든 예술적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만한 기회를 갖기도 전에 찾아온다면, 아무리 내 운명이 험난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너무 일찍 찾아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죽음이 조금 더 늦게 찾아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대로 죽는다 해도 난 행복해 할 것이다. 죽음이 나를 끝없는 고뇌에서 해방시켜 줄 테니까. 죽음이, 올 테면 오너라. 용감하게 그대를 맞아주마..”</p>	(하일리겐슈타트 유서의 일부를 읽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베토벤의 심정을 생각해본다.)	· 베토벤의 일화를 통해 그의 심정을 이해함으로써 감정 발달 교육을 한다.
전개 (25분)	학습 목표 문제 해결	<p>◆ 학습목표 제시</p> <p>1. 베토벤의 ‘영웅’교향곡이 작곡되던 시기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며 2악장을 감상한다.</p> <p>◆ 내용학습</p> <p>◇ ‘영웅’교향곡이 작곡되던 시기의 문화적 배경</p>	(학습 목표를 인지한다.)	· 타 교과(국어, 미술)와 통합한 교육을 한다.

	<p>* ‘영웅’교향곡이 작곡되던 시기에 활동하던 작가의 문학작품을 소개한다.</p> <p>☞ 몽테스키외 (Charles-Louis de Secondat, 1689-1755)</p> <p><법의 정신 (De l'esprit des lois)></p> <p>: 몽테스키외는 이 책을 통하여 전제정치를 비판하고 ‘권력분립을 최초로 외치며 근대 법치국가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p>	<p>(전제정치의 억압에서 벗어나 법에 의한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는 문학작품을 통해 그 시대 상황의 이해를 돕는다.)</p>	<p>· 타 교과(문학)와 통합한 교육을 한다.</p>
	<p>* ‘영웅’교향곡이 작곡되던 시기에 활동하던 작가의 미술작품을 소개한다.</p>  <p>☞ 샤르댕(Jean-Baptiste-Siméon Chardin, 1699~1779) <가정교사></p> <p>: 계몽주의 사상이 만연했던 18세기 지식인들은 아동에 대한 관심어린 격려와 가르침으로 교육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림에서는, 노는 데에 정신이 팔려 학교 가는 것을 잊어버린 소년을 가정교사가 타이르고 소년은 그것을 수긍하는 모습이다.</p>	<p>(시민계급의 계몽주의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보여주는 그림에 반영된 그 시대 사람들의 소망을 이해한다.)</p>	<p>· 타 교과(미술)와 통합한 교육을 한다.</p>

		◇ ‘영웅’교향곡 2악장 감상 : ‘영웅’교향곡 2악장을 들려준다.	(1악장의 분위기와 대조되는 단조의 분위기를 느끼며 2악장을 감상한다.)	·8학년 때는 다양한 단조음악을 경험한다.
마무리 (12분)	정리 • 차시 예고	◆ 형성평가 1. 장송행진곡 감상 후, 자신이 죽은 후 묘비에 적히길 바라는 글귀를 적어보기. ◆ 차시예고 -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 3악장 감상 ◆ 끝인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묘비에 적히길 바라는 글귀를 적어본다.) (앞서 감상한 1,2악장과 3악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생각해본다.) (인사를 하고 마친다.)	· 제재 곡 2악장 감상 후 각자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자신만의 교과서를 구성한다.

3. ‘생활화’영역 지도방안 모색

1) ‘생활화’ 영역 교수·학습 단원 계획

‘생활화’ 영역에서는 중학교 3학년(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내 합창제에 참석한 후 공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 <표. III-8>은 ‘생활화’ 영역의 교수·학습 단원 계획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III-8> ‘생활화’ 영역 교수·학습 단원 계획

대상 학년	9학년 (중학교 3학년)
학습 내용	교내 합창제에 참석하고 공연 평가하기.
성취기준	9음3-01.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다.
학습 목표	교내 축제인 합창제에 참여하고, 공연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슈타이너 음악교육 철학을 적용한 교과 지도방안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생활화’영역의 성취기준 “9음03-01.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다.”³²⁾에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지도방안을 설명하겠다.

9학년의 ‘생활화’ 영역 수업에서도 시구를 읽는 ‘시 낭송’으로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다듬는다.

슈타이너는 9학년 학생들이 각자 배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는 공연을 경험하도록 하였는데, 독주 연주를 할 수도 있고 그룹을 구성하여 공연을 할 수도 있다. 교내·외 축제를 비롯하여 마을 행사에서 연주를 함으로써 학생들은 연주자들 사이에서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또 성공적인 연주를 통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은 연주였다면 거기서 각자

32) 교육부, 상계서, p. 16.

가 배우는 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슈타이너는 이 시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음악을 판단하는 비평 능력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음악 수업은 학생의 주체적인 직관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의 교과 지도방안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개월 간 연습을 통해 교내 합창제에 참여한 후, 음악 수업 시간을 통해 공연 내용과 공연 기획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공연을 통한 느낌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만의 음악 교과서를 구성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타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통하여 감정 발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표. III-9>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생활화’영역의 ‘성취 기준’에서 본 절의 교수·학습 지도안에 적용한 것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고, <표. III-10>은 ‘생활화’영역에 적용한 슈타이너의 음악교육 교수법을 제안한 것이다.

<표. III-9> ‘생활화’영역 교수·학습 지도안에 적용한 ‘성취기준’

성취기준	9음3-01.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다.
------	--

<표. III-10> 슈타이너의 음악교육 철학을 ‘생활화’영역에 적용한 교수법

슈타이너 음악교육 철학	수업시작을 알리는 시 낭송	주체적으로 음악을 비평할 수 있는 수업	합창 및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사회성 교육	자신만의 음악 교과서 만들기	감정 발달 수업
--------------------	----------------------	--------------------------------	-----------------------------------	-----------------------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9학년) 학생들이 교내 합창제에 참여한 후 스스로 공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2) '생활화'영역 교수·학습 지도안

과목	음악	대단원	음악관련 행사	대상	9학년 (중학교 3학년)
소단원	교내 합창제 참여 후 평가하기	차시	1/1	지도교사	이로사
성취기준	9음03-01.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다.				
학습목표	교내 축제인 합창제에 참여하고, 공연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학생		
	동영상, 음악노트		음악노트, 필기도구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활동		슈타이너 교육철학	
		교사	학생		
도입 (8분)	인사	<p>◆ 첫 인사</p> <p>: 시 낭송 후 인사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해님은 식물들에게 빛을 줍니다. 해님이 식물들을 사랑하니까요. 사랑을 할 때는, 그렇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의 빛을 줍니다.</p> </div>	(오늘의 시 낭송 담당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구를 낭송한 후, 다함께 인사한다.)	시 낭송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문제 인식	<p>◆ 동기유발</p> <p>◇ OO중학교의 특색 있는 합창제 공연을 영상으로 본다.</p>	(또래 학생들의 공연을 보고 느낌을 나누고 자신들의 연주상황을 떠올린다)		

	학습 목표	◆ 학습목표 제시 1. 학교 내·외 행사 및 축제에서 연주하고 공연을 평가 할 수 있다.	(학습 목표를 인지한다.)	
진개 (25분)	문제 해결	◆ 내용학습 - 수업 전 - ◇ 매년 열리는 교내 합창제에 참석한다.(피아노 반주 뿐 아니라 자신들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반주 및 연주를 할 수 있다.)  - 수업 시 - ◇ 공연 당시에 촬영한 연주 장면들을 보여준다. ◇ 어느 팀의 공연이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다. ◇ 내년에 열릴 합창제에 보충되길 바라는 내용을 물어본다.	(교내 합창제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준비한 노래와 음악적 끼를 발산한다.) (자신들의 연주를 감상하고, 연주 전·후의 느낀 점을 음악 노트에 적고 발표한다.) (자신들의 공연 뿐 아니라 다른 팀의 공연은 어떠한 점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내년에 열릴 합창제에 대하여 건의 사항이 있으면 생각하고 발표한다.)	· 합창과 악기연주를 통하여 학급 친구들과끼리 이해심과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 자신만의 음악 교과서를 구성한다. · 발표를 하며 자신의 느낌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를 함으로써 감정을 발달시킨다. · 자신만의 생각으로 음악(공연내용)을 비평할 수 있다 · 자신만의 생각으로 음악(공연 기획)을 비평할 수 있다.

<p>마무리 (12분)</p>	<p>정리</p>	<p>◆ 형성평가 1. 합창제(공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통하여 가장 고마웠던 대상에게 편지를 쓴다.</p> <p>◆ 차시예고 - 음악과 관련된 문화 산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p> <p>◆ 끝인사</p>	<p>(수 개월간 합창제를 준비하며 함께했던 친구나 선생님들 중 가장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발표한다.)</p> <p>(음악의 문화 상품적 가치를 알고 그에 관한 산업에 대해 조사한다.)</p> <p>(인사를 하고 마친다.)</p>	<p>·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통하여 감정 발달 교육을 한다.</p>
----------------------	-----------	--	--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전인적 능력을 갖추어, 스스로 사고하고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 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따라서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입각한 중학교의 음악교과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본질과 정신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은 우리나라 음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다.

첫째, 슈타이너의 음악교육은 인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신체적 발달, 정신적 발달, 영혼의 발달에 기여한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의지, 감정, 사고가 적절한 시기에 발달해야 사고가 성장할 수 있고, 자유롭고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이 만연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슈타이너의 음악교육은 물질만능 주의가 팽배한 현 시대를 비판하며 정신성 회복을 강조한다.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학생들의 흥미와 자질을 고려한 교육의 실천과, 학생들의 발달상태에 주시하여 알맞은 교육을 하는 것이 ‘자유 발도르프 학교’ 교사의 주된 임무이다.

셋째, 슈타이너의 음악교육은 오로지 음악교과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교과와 통합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이 지적 발달 뿐 아니라 예술적인 감각의 발달을 돕는다. 성과 지향적인 우리나라의 교육과는 달리 자유 발도르프 학교는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교육이 예술적인 구성을 갖추어 이루어진다. 슈타이너의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은, 의지·감정·사고로 작용하는 영혼의 발달과 자아를 통하여 신체·영혼·정신이 조화롭게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음악교과 시간 뿐 아니라 타 교과 수업에서도 교사의 수업 방법 자체가 창의적

이며 자유롭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예술적 감각과 감정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토대로 한 ‘자유 발도르프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자유 발도르프 학교’ 음악교육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모방하겠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슈타이너는 각 국가, 지역에 따라 그 학교에서 갖출 수 있는 환경에 맞게 융통성 있게 교육이 이루어지되 자신이 주장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였다.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사가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선행하는 것이 교육의 관건인 것이다.

둘째, 자유 발도르프 학교가 본래 대안학교의 취지로 설립이 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공교육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그로 인한 학생들 간의 경쟁구도가 팽배하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나라의 악곡이나 악기를 사용한 교육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이 묻어나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학생들의 의지·감정·사고의 발달이 기대된다.

셋째,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제대로 습득하기 위하여 교사들을 위한 교사 양성 교육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음악의 요소’를 지도하기 위한 교과로서 자리매김 하는 음악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올바로 이해하여 그들의 정신과 신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먼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김현경(2013),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는 발도르프 음악교육』 서울 : 물병자리

정윤경(2000),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발도르프 학교』,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정윤경(2004), 『발도르프 교육학』, 서울 : 학지사

데이비드 슬론 윌슨(David Sloan Wilson, 1949~)지음, 해주연 옮김(2015),
『청소년을 위한 발도르프 학교의 문학수업』, 서울 : 푸른씨앗

요하네스 키르쉬(Johannes Kiersch), 김정임, 이정희 옮김(2004)
『발도르프 교육학 -루돌프 슈타이너 교육학 입문』, 서울 : 아르케

子安美知子(1988), 최시원 역, 『슈타이너 학교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학술지>

함희주(1988). 슈타이너 교육이념에 의한 발도르프(Waldorf)학교의 음악교육.
『음악교육연구 제17집』. 한국음악교육학회

<국내 학위논문>

김지예(2009), 『슈타이너의 교육이념을 적용한 중학교 음악수업의 연구 - 7차

- 음악과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경(2013), 『독일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방법을 적용한 음악수업 지도방안 연구 : 9학년 수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형미(2007). 『오이리트미 교육법을 활용한 수업방안』,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기정(2004), 『슈타이너 음악교육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진(2012),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과정에 기초한 중등학교 미술교육 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혜숙(2016), 『슈타이너 교육사상을 통한 발도르프학교의 음악교육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성화(2000), 『독일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혜령(2008), 『독일 발도르프 음악교육의 활용방안 -우리나라 중등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인터넷 자료>

한국 발도르프 교육협회(2000), 발도르프 학교 일반사항 매뉴얼

<http://www.waldorf.or.kr/1all.html>

박성호(201512.08.),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ahmozart님의블로그 [블로그 포스트]. <http://blog.naver.com/ahmozart>

<검색어>

- **Naver**

‘전인’ 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Abstract >

English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 for Middle School Music Class
Applied on Steiner's Education Philosophy**

Lee, Ro-sa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jor of Music Education

Professor Park Soon Bang

This study has a purpose of contribution to make Korean students surrounded by material civilization be whole-person with independent thinking ability. For students' growth, it explores teaching method for music class at middle school applying Rudolf Steiner(1861~1925)'s cognitive educational philosophy.

First of all, this study investigates life of Steiner, his cognitive education theory, teaching method, and features of Free Waldorf School based on his educational philosophy. Also, it analyzes 'content organization and standard of accomplishment' suggested from 「2015 Revised Curriculum of Music Education」.

As for 'expression' section, this study suggests teaching guidance plan for two classes

for fir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7th grades) with accomplishment standard applied Steiner's educational philosophy. This study selects Franz Peter Schubert's(1797 ~1828) art song, Die Lindenbaum for singing repertoire.

Next, for 'appreciation' section, this study suggests teaching guidance plan for two classes for second grades at middle school (8th grades) with accomplishment standard applied Steiner's educational philosophy. It has Ludwig van Beethoven's (1770~1827) the first and second movement from Symphony no.3 in E flat Major, Op.55 'Eroica' as singing repertoire.

Finally, for 'familiarization' section, with accomplishment standard applied Steiner's educational philosophy, third grade students from middle school (9th grade) will participate in the chorus performance in their schools and criticize others' performance as well as their own. For this section, teaching guidance plan for one class is organized.

The core of Steiner's education that supports this study's teaching guidance plan is in helping students in managing their lives freely and independently by developing their thinking and emotions in an appropriate period. Steiner insisted that education consider students' interest and aptitude not focusing only on college entrance exams by putting emphasis on recovery of 'spirituality' criticizing modern time with prevalent materialism. He also explained whole-person education is possible by having simultaneous development of intellectual and artistic senses throughout integrated education of music and other subjects.

To adapt Steiner's education philosophy,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education that Steiner stressed should come first. In addition, since 'Free Waldorf School' was originally built for the purpose of alternative school, it will take time and efforts to make it public education in Korea. Last but not least, it is vital fact that enough education base for training teachers should be prepared.